



올 추석은 우리가 접수한다

극장가 한가위 大戰

다른 때 보다 긴 명절 연휴를 맞아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두편의 애니메이션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눈에 띈다. '설국열차'와 '김시자'로 흥행 대박을 터트린 송강호와 설경구가 다시 맞붙은 '관상'과 '스파이'의 흥행 경쟁도 흥미롭다.

▲관상

조선 최고의 관상쟁이가 역모의 기운이 감도는 수양대군의 관상을 보고 김종서와 함께 위태로운 조선의 운명을 바꾸려하는 내용을 그린 퓨전 사극이다.

속세를 떠나 산속에 칩거하던 조선시대 천재 관상쟁이 내경은 관상 보는 기생 연흥의 제안으로 한양 연흥의 방에서 관상을 보기 시작한다. 얼굴만 보고도 그 삶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는 김종서로부터 사헌 부를 도와 인재를 등용하라는 명을 받고 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연애의 목적', '우아한 세계'의 한재림 감독 작품이다. '설국열차'의 송강호, 김혜수·이정재·백윤식 등 중견연기자와 영화 '건축학개론'을 거쳐 드라마 '최고의 이순신'에서 주역을 맡은 조정석,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이종석 등 화려한 배우진이 눈에 띈다. <15세 관람가>

▲스파이

남편이 국정원에서 첩보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인 줄 모르는 아내가 남편이 진행하는 작전에 끼어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액션 첩보물이다.

아내에게 신분불을 감춘 채 위태로운 이중생활을 하는 국정원 요원 첩수는 북한 핵물리학자 백설희의 한국 망명을 돕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스텔라디스인 아내 영화가 끼어들면서 일은 혼란에 빠진다.

연기와 배우 설경구와 문소리가 '박하사탕', '오아시스'에 이어 다시 호흡을 맞췄다. 대니얼 헤니, 고창석, 한예리, 정인기 등 탄탄한 조연진이 뒷받침한다. 호남대 출신 신인감독 이승준의 데뷔작이다. <15세 관람가>

▲슈퍼 배드 2

시리즈 1편에서 달을 훔쳤던 슈퍼 악당 그루가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세상을 구할 영웅이 돼 캄백하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어느날 거대한 자석에 의해 남극의 비밀연구소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알고 보니 악당들이 생물을 야수로 만드는 약물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 세 딸들과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그루는 비밀요원 루시와 함께 위장 쿠기 가게를 차려 악당을 찾고, 이 과정에서 루시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한편 정체를 모를 악당은 미니언들을 납치해 괴물로 변신시켜 세계를 정복하려하는데- 쉴 새 없이 개그를 펼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노란색 생물체 미니언 등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도 눈에 띈다.

소녀시대의 태연과 서현이 목소리 연기에 도전했다. <전체 관람가>

▲몬스터 대학교

10년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몬스터 주식회사'의 프리퀄이다. 모든 일에 열심인 몬스터 마이크와 엄친아 몬스터 설리는 학창 시절 때부터 라이벌 관계다. 꿈을 안고 몬스터 대학교에 진학한 그들은 전공이 퇴출 위기에 몰리자 교내 걸주기 대회에 팀을 이뤄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서 처음으로 힘을 합친다. 초반의 실수를 딛고 승승장구하며 그들은 교내 영웅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빌리 크리스탈, 존 굿맨, 스티브 부세미 등 베테랑 연기자들이 더빙했다.

몬스터 시리즈의 특징 중 오프닝 애니메이션으로는 빨강 우산과 파랑 우산의 로맨스를 그린 '파란우산'이 상영된다. <전체 관람가>

▲컨저링

공포 영화 '소우' 시리즈로 유명한 제임스 완 감독의 신작으로 1970년대 활동했던 미국의 유명한 초자연 현상 전문가 워렌 부부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영화의 메인 스토리는 당시 그들이 겪은 실화 가운데 새로 이사 간 집에서 기이한 현상을 마주하고 죽음을 공포에 사로잡힌 폐문 가족의 일화가 중심이다. 공포스러운 비주일과 사운드 등 기존 공포 영화가 갖고 있는 요소들을 모두 제거했음에도 분위기 조성만으로 관객을 공포에 떨게 해 미국 개봉당시 흥행에 성공했다. 포스터 메인 카피가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다. 현재 속편도 제작중이다. <15세 관람가>

▲퍼시 잭슨과 괴물의 바다

'퍼시 잭슨과 번개 도둑'에 이은 두번째 시리즈다. 아버지로부터 배반당했다고 생각하는 루키는 탈리아 나무의 방어벽을 부수고 데미갓 캄포를 속대밭으로 만들어 퍼시를 도발한다. 죽어가는 탈리아 나무를 살리려는 퍼시와 사악한 크로노스를 부활시키려는 루크에게 모두 필요한 것은 마법의 양피. 퍼시는 양피를 찾기 위해 다시 위험천만한 모험을 떠난다.

눈 없는 마녀들이 택시를 운전하는 장면, 퍼시의 배다른 형제인 외눈박이 종족 타이슨의 활약상 등 볼거리가 많다. <12세 관람가>

▲새도우 헌터스: 뼈의 도시

'뼈의 도시', '재의 도시', '유리의 도시'로 이어진 카산드라 클레어의 3부작 베스트셀러를 영화화했다. 이 시리즈는 36개국 언어로 번역돼 2200만부 이상 팔려나간 화제작이다.

평범한 소녀 클레리는 우연히 만난 악마 사냥꾼 '새도우 헌터'를 통해 자신 역시 악한 다윈월드로부터 영원히 인간들의 세계를 보호하는 운명을 부여받은 새도우 헌터임을 알게된다. <15세 관람가>

그밖에 국내에서 제한 상영 논란을 빚었던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18세 관람가>와 정유미·이선균 주연의 홍상수 감독 작품 '우리 선희' <18세 관람가> 등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몬스터 대학교



긴 연휴 다양한 장르 눈길

'관상' '스파이' 흥행 경쟁

'몬스터 대학교' '슈퍼 배드 2'

가족·어린이 관객 노려



슈퍼 배드 2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이름이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남들의 가정에도 늘 한가위처럼 풍성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호남을대표하는 여행브랜드
조이투어
JOY TOUR CO.,LTD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